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면 안 되는 음식

예전에 어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음식점에서 키우는 개에게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은 개와 고양이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들은 개와 고양이에게 해롭거나 심한 경우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이 해로운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로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포도는 맛도 좋고 우리 몸에도 무척 유익한 과일입니다. 포도에는 항산화 영양소이자 항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데 대표적인 것이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과 안토시아닌(Anthocyanin)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비타민 C보다 2~30배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활성 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아 줍니다. 안토시아닌의 경우 역시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자 시력 보호, 당뇨, 항염증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좋은 포도를 개와 고양이가 섭취하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포도의 어떤 물질이 이들에게 해로운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섭취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급성 신부전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구토, 설사, 식욕부진, 탈진, 복부 통증, 탈수, 핏뇨(오줌이 나오지 않는 증상), 발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독성을 나타내려면 일정량 이상이 섭취되어야 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몸무게 kg당 3g 이상 섭취한 10마리의 개에서 급성 신부전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 의하면 몸무게 kg당 32g 이상을 먹는 경우 급성 신부전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만 용량과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섭취하게 되면 보통 6시간 이내에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초에는 구토를 하기 시작하여 6~12시간 내에 설사, 복부 통증, 무기력, 탈수, 경련 등의 문제가 보입니다. 섭취된 포도는 구토나 분변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핏뇨와 신부전의 문제는 섭취 후 보통 1~3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개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개나 고양이가 포도를 섭취한 것으로 보이면 되도록 신속하게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이한 사실은 포도를 먹는다고 모든 개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개들은 포도를 섭취하더라도 문제를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포도를 스스로 먹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때때로 사람용 영양제를 고양이 음식(예 : 생식)에 넣어 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사람용 영양제에 포도가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포도



마늘



커피



양파

양파는 퀘세틴(Quercetin)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 특히 고혈압, 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퀘세틴 역시 항산화 영양소로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그리고 양파에는 알리신(Allicin)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양파 특유의 냄새와 매운맛을 내는 영양소로 항암효과가 있고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구토, 설사, 빈혈, 간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양이가 개보다 더 민감한데 한 연구에 의하면 개의 경우 몸무게 kg당 15~30g의 양파를 섭취한 경우와 고양이의 경우 몸무게 kg당 5g 이상의 양파를 섭취한 경우 적혈구를 손상시켜 빈혈을 야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파가 들어있는 어떤 음식을 며칠간에 걸쳐 개와 고양이가 섭취할 경우도 적혈구 손상을 동반한 빈혈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말린 형태, 생양파, 요리된 양파 등 모든 종류의 양파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양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사람 음식을 개와 고양이에게 주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양파를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부 통증, 식욕 감소, 침울, 탈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수일 내에 적혈구 파괴를 동반하는 빈혈이 나타나 점막이 창백해지고 호흡수와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며 숨을 잘 쉴 수 없게 되고 파괴된 적혈구가 요로 배출되어 오줌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마늘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인 마늘은 건강식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은 사람에게 있어 항암 효과와 함께 항균 작용, 당뇨병 개선, 심혈관계 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비슷하게 알리신(Allicin)이라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마늘의 경우도 양파와 비슷한 종류이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섭취하게 되면 적혈구 손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파보다는 독성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량을 섭취할 경우 적혈구 손상을 야기하여 양파를 섭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용혈성 빈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호흡 곤란, 구토, 심장 박동수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위장관 점막 손상을 일으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늘이 안전할 뿐 아니라 구충효과가 있다고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지만 극소량에서 안전하고 극소량을 급여한 경우 구충효과

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먹이지 않는 편이 권장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요리에 마늘이 첨가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 마늘과 비슷한 종류로 부추, 파의 경우도 알리신을 함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와 고양이가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콜릿

카카오에서 얻는 이 달콤한 식품은 개와 고양이에게 치명적입니다. 초콜릿에는 테오필린(Theophylline)과 테오브로민(Theobromine)이라는 개와 고양이에게는 독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차와 콜라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이 테오브로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적은 양을 섭취하여도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매뉴얼에 의하면 개 몸무게 kg당 1.3g 이상의 초콜릿을 먹는 경우 독성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오필린의 경우 개에서 몸무게 kg당 300mg, 테오브로민의 경우 몸무게 kg당 250~500mg을 섭취하게 되면 섭취한 개의 50%가 사망하게 됩니다. 고양이의 경우는 몸무게 kg당 테오필린 700mg, 테오브로민 200mg을 섭취하게 되면 50%가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콜릿을 섭취하게 되면 신속하게 흡수되어 곧바로 중추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임상 증상은 섭취 6~12시간 만에 오심, 구토, 설사, 호흡곤란, 배뇨량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국 탈수, 행동 장애, 심근 부정맥, 내부 출혈, 호흡 곤란, 고혈압, 간질, 경련, 고체온증 등이 나타나고 사망하게 됩니다. 섭취 용량에 따라 증상도 달라지는데 적은 양을 섭취한 경우 구토, 설사, 음수량 증가가 나타나고 좀 더 섭취하게 되면 심장 독성을 띄게 됩니다. kg당 60mg 이상의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발작 증세가 나타납니다.



카페인

카페인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 효과가 있고 이외 기관지 확장, 위액 분비 촉진, 이뇨 작용 등이 있습니다. 커피, 차, 에너지 드링크 등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 섭취 시 30분에서 12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과잉 행동, 경련, 갈증, 심장 박동수 증가, 발작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의 경우 몸무게 kg당 140mg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50% 확률로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섭취하는 다양한 음식, 특히 음료수 등에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마카다미아

마카다미아는 종종 쿠키에 박혀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카다미아는 생으로 먹이거나 익히더라도 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섭취하게 되면 근육, 소화기, 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운동실조, 경련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은 개의 몸무게 kg당 2.4g 이상에서이고, 개체에 따라 다양한데 어떤 개는 좀 더 많은 양을 섭취했는데도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가 이것을 섭취하였을 때 문제를 보이는 유일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섭취하게 되면 12시간 이내에 뒷다리에 힘을 못 쓰는 문제와 함께 우울, 복부 통증, 근육 경련, 다리 통증, 마비, 체온 상승(직장 체온이 40.5°C 이상)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임상증상은 대부분 24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아직 사망에 이르렀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마카다미아

🌿 아주까리

아주까리(피마자)는 잎의 경우 종종 나물로 이용하고 씨앗의 기름은 의약품이나 공업용 제품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아주까리 씨앗을 이용하여 비료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비료를 토양에다 뿌려준 것을 개가 먹고 사망한 사건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까리 씨앗에는 리신(ricin)과 리시닌(ricinine)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매우 유독하여 극히 소량을 섭취하여도 독성을 나타냅니다. 아주까리 씨앗에 들어있는 리신의 함량은 약 3%에 달하며 씨앗을 섭취하게 되면 12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임상증상을 보이는데 구토 및 혈액이 섞여 있는 설사를 하게 되고 복부 통증과 함께 경련, 호흡 곤란, 저혈압, 신부전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망하게 됩니다.



아주까리

🍯 자일리톨

자일리톨(Xylitol)은 천연소재 감미료로 청량감이 뛰어나며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설탕이 가진 칼로리의 2/3밖에 되지 않아 시리얼, 사탕 등의 음식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충치를 야기하는 세균인 유탄균(Streptococcus mutans)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껌, 치약 등 구강 관리 제품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자일리톨을 동물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증가와 관련된 저혈당증이 나타납니다. 즉, 개의 경우 자일리톨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를 급격히 촉진하여 혈중 포도당 수치를 신속하게 낮추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혈당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침울, 운동실조, 간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결국 급성 간부전을 일으켜 사망하게 됩니다. 임상 증상은 섭취 후 30분 만에 나타날 정도로 빠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혈당증을 야기하는 용량은 몸무게 kg당 100mg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간손상을 야기하는 용량은 kg당 500mg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일리톨의 인슐린 분비 촉진 효과로 인한 문제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만일 개와 고양이가 자일리톨이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을 먹었다면 즉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저혈당과 간부전 관련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일리톨



알코올

재미로 술을 개에게 먹이거나 우연히 동물이 썩은 사과 등을 섭취하여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의 경우는 적은 양의 알코올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개와 고양이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데 정신 안정과 관련이 있는 GABA라는 호르몬을 억제하여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운동실조, 저체온증, 구토, 설사, 호흡곤란, 간부전,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맥주의 호프(hop)도 개에게 독성이 있어 섭취하게 되면 호흡곤란, 심박수 증가, 고체온증, 간질,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한 빵 반죽 등에 들어 있는 효모는 부산물로 에탄올을 생성하게 되는데 빵 반죽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을 섭취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 열매, 씨, 잎과 줄기 모든 부분이 개와 고양이에게 독성을 띠 수 있습니다. 퍼신(Persin)이라는 물질은 곰팡이를 죽이는 특성이 있는데 최근 사람에서 유방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 퍼신은 개와 고양이에게는 독성을 띠 수 있습니다. 아직 독성을 나타내는 유효 섭취량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숨을 쉬는 것이 어렵게 되고 결국 산소 고갈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를 섭취하게 되면 우선 위장관 자극에 의한 구토, 설사를 보이게 되고 호흡 곤란, 폐수종, 심장 주위 조직의 수종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류나 토끼의 경우 아보카도에 대한 민감성이 더 높는데 만일 집에 애완조류나 토끼를 키우고 있다면 아보카도를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과일의 씨앗 부위

감, 복숭아, 살구 등 과일의 씨앗은 그 자체로 위장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식도를 막거나 장폐색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씨앗과 그 주위에는 시안화물(Cyanide)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신체 조직의 손상을 야기합니다. 시안화물 성분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수 시간 이내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구토 등의 증상과 함께 배뇨, 배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붉은 색조를 띠는 신체 점막 부위는 파란색조로 바뀌게 되고 심한 경련과 함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과의 경우 반려견에게 종종 주는 과일인데 과육 부

위는 안전하고 유용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어 몸에 좋지만 씨앗과 그 주위 부분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버섯

일부 버섯의 경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개와 고양이에게도 독성을 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가을에 반려견과 함께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산책 도중 버섯을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종류는 아마니타(Amanita), 갈레리나(Galerina), 레오피오타(Leopiota) 종인데 이중 아마니타종이 가장 빈번하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버섯이 가지고 있는 독성 성분은 사이클로펩타이드(Cyclopeptides)로 아마톡신(amatotoxin), 팔로톡신(phallotoxin), 비로톡신(virototoxin)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분을 섭취하게 되면 신속하게 장에서 흡수되어 구토, 혈액이 섞인 설사, 오심, 복부 통증, 탈수, 전해질 불균형, 고열, 빈맥, 고혈당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섭취 후 3~4일이 지나면 간부전, 신부전, 저혈당증, 혈액 응고 장애, 질소 혈증, 대사성 산증 등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토마토 줄기

잘 익은 토마토의 빨간 부위는 유해하지 않고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인 라이코펜(Lycopene)이 들어있어 활성 산소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여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설익은 녹색 토마토와 줄기, 꼭지 등 토마토의 녹색부위는 솔라닌(solanine) 성분이 들어있어 과량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소화기 장애와 함께 동공 확장, 경련,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고 신경계, 신장, 소화기관에 문제를 안겨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귤, 레몬, 오렌지

이들 과일은 개나 고양이가 과량 섭취하게 되면 모두 위장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 과일, 특히 줄기나 껍질 부위에는 오일 성분(Citrus oil)과 소랄린(Psoralein)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침울, 침흘림, 경련, 운동 실조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독성 용량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에는 먹이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